



보도시점 2024. 10. 18.(금) 배포 시 배포 2024. 10. 18.(금)

토마토 작황은 회복 중이며, 기후변화 적응강화 대책 차질없이 추진 중

- 기온 하락 등으로 토마토 생육이 점차 회복되고 있어 앞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 적응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스마트 농업 확산 및 기후적응 품종 개발 보급 등 추진 중

< 보도 주요 내용 >

10월 18일(금) 이데일리 「金배추·金시금치 이어 金토마토,, 일상 된 먹거리 대란」 등 다수 매체에서 “**①** 폭염으로 인해 토마토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며, **②** 기후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토마토는 9월 하순부터 생육이 회복되고 있어, 앞으로 공급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마토 주 출하지인 전북 장수, 강원 철원 등은 9월 하순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토마토 착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육도 점차 회복되고 있어 공급 여건은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토마토 생육 적온 : 주간 21~29℃, 야간 15~21℃ / 재배한계 : 10.5℃ 이상 30℃ 이하

** 전북 장수 기온 변화: (9월 중순) 평균기온 25.7℃ / 최고기온 31.2℃ → (9월 하순) 19.8℃ / 25.9℃
강원 철원 기온 변화: (9월 중순) 평균기온 24.6℃ / 최고기온 28.9℃ → (9월 하순) 19.2℃ / 25.5℃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②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스마트 온실 보급, 품종개발 등 농업분야의 다양한 대책을 적극 수립·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전부처 차원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여 기후변화에 다양한 형태로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후 영향 최소화를 위해 ICT 시설·장비와 최적 생육 데이터솔루션 보급을 통해 스마트온실로의 전환을 촉진(스마트온실 : ('22) 7천ha → ('27) 1만ha)하고 노지 분야의 스마트농업 확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온, 일조부족 및 병해충 등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을 매년 15종 내외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23: 42작목, 337품종)하고 있습니다.

* 품종 개발(누적): ('20) 289품종 → ('21) 303 → ('22) 318 → ('23) 337 → ('24p) 352

** 주요 개발 품종 : 내서성이 강한 배추 '하라듀', '순정아삭이' / 고온기 다수성이 뛰어난 상추 '고흥' / 고온 착색이 양호한 사과 '골든볼' / 고온 재배용이·수량 많은 인삼 '진원' 등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의 구조적 대응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설립('23~'26)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담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는 한편, 체계적인 농업분야 기후대응을 위한 법적근거(기본법) 마련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토마토>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책임자	과 장	신지영 (044-201-2251)
		담당자	사무관	박찬원 (044-201-2258)
<기후변화>	동물복지환경정책관 탄소중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혜윤 (044-201-2631)
		담당자	서기관	김방연 (044-201-2634)

